

식품포장용기 종합메이커 지향

무리한 투자는 지양



◀조면희
(주)동광 대표이사

창업과 성장과정

지난 1976년 2월 서울 신길동에서 조면희 대표이사와 정관모 사장은 본인의 가정집 2층에 사무실을 정하고 식품 첨가물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광일의 제품인 첨가물 대리점을 시작으로 현재의 주식회사 동광을 탄생 시켰다.

그 당시 (주)동광의 주 판매 품목은 두부 응고제인 황산칼슘이었고 동업자인 정관모 사장의 뛰어난 영업전략으로 전국의 두부공장을 거래처로 확보하였다.

당시 두부 공장들은 대량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취식에 대한 기호가 변화하면서 두부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위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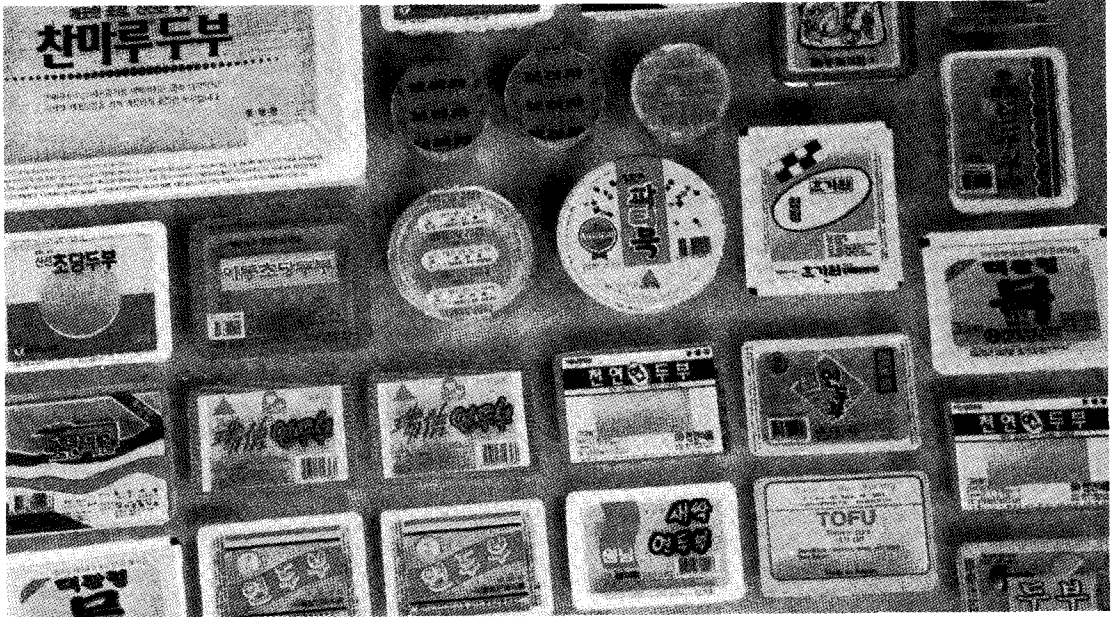
중요시하는 성향에 맞추어 포장 방법을 바꾸게 되었고 두부업계는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는 일환으로 일본으로 부터 두부포장기계를 수입해 왔다.

이런 결과로 기계장치에 맞는 포장용 필름인 롤 타임 필름, 삼방필름, 레토르트 식품용 필름도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수입해 우리 포장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면도 있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포장산업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두부 응고제 만으로는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조 사장은 외국 기술에 버금가는 포장기술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순두부 튜브 개발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여 1984년 처음으로 문래동에 공장을 임대하여 순두부 튜브 포장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 사장은 많은 시행착오와 기업의 적자를 감당하게 되었지만 굵기지 않는 신념과 끈기로 5년의 연구 끝에 열탕에서 냉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는 2중으로 된 수축방지용 필름을 탄생시켰다.

이 결과 순두부 튜브에 있어서는 (주)동광의제



▲ (주) 동광이 생산 한 완성 제품

품들은 일본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당시 동광에서 개발한 순두부 튜브에 들어가는 수축 방지용 필름은 그 기능이 평범한 것 같지만 신축성 없이 높은 강도에서 탄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포장업계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었다.

이를 본 일본업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었지만 조 사장은 혼자의 힘으로 오랜 시련 끝에 가공 부문에서 두분의 약점인 점착부의 문제를 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시절 조 사장이 중년의 나이로 동광상사를 시작한 이래 겪은 제일 어려운 시기였다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두부 공장을 대상으로 그

동안 진공포장제품, 튜브, 연두부 필름, 유부용 필름, 레토르트 식품용 필름 등 연포장 필름에 대해서 공급을 전담해 왔으며 순두부 튜브만큼은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더군다나 로봇 자동 취출기를 수입해와 (주)동광의 생산라인 중 절반을 자동화 시설로완비 하였다. 로봇 자동 취출기는 연포장기에서 생산해낸 두부용기, 김, 단무지용기를 수동작업으로 2시간동안 10사람의 양을 1시간의 작업으로 줄여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기이다.

이렇게 서서히 사업이 변창하면서 1989년 3월에는 안산시 본오동의 준 공업단지에 공장용지를 분양 받아 2백평 정도의 작은 건물을 완공하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등 1976년 2월 에 본 자택에서 사무실을 낸 조사장으로는 놓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리면서 1996년 7월에 시화공단으로 5백평 규모의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지난 8월 10일 대지 2,000평의 공장을 확장 이전하여 현재의 (주)동광을 이룰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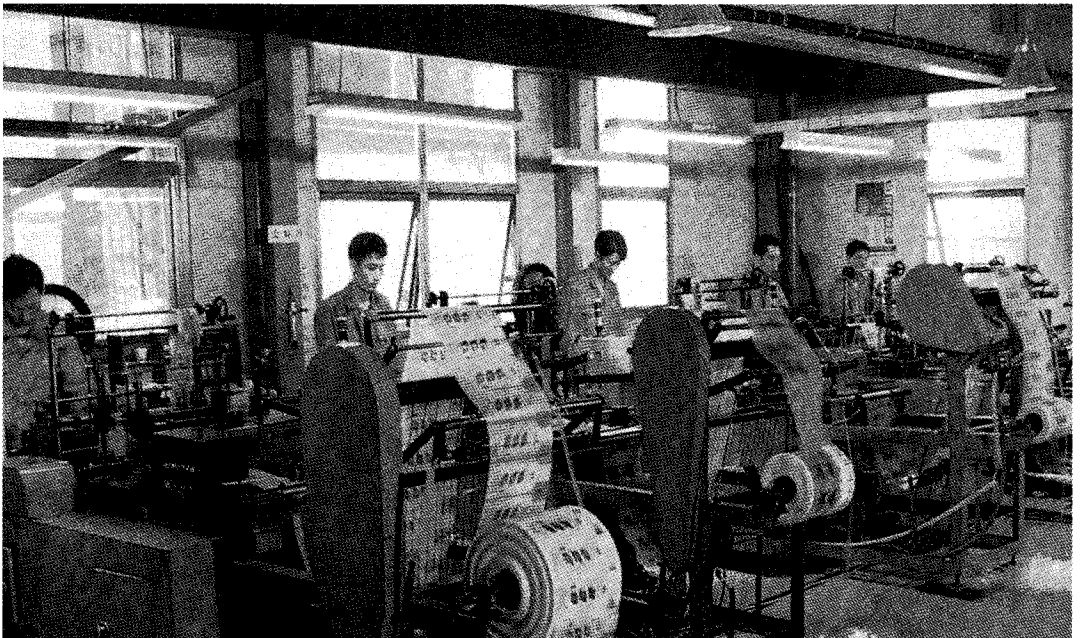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동광에도 시련은 다가왔다. 70~80년대 불모지와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면서 동종업체들이 다투어 사업을 시작해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주)동광 기술력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으로 조 사장은 종합용기 포장업체에 도전하고 있다. 동광의 보유 시설은 시트 압출기, 진공 성형기, 유압 프레스, 자동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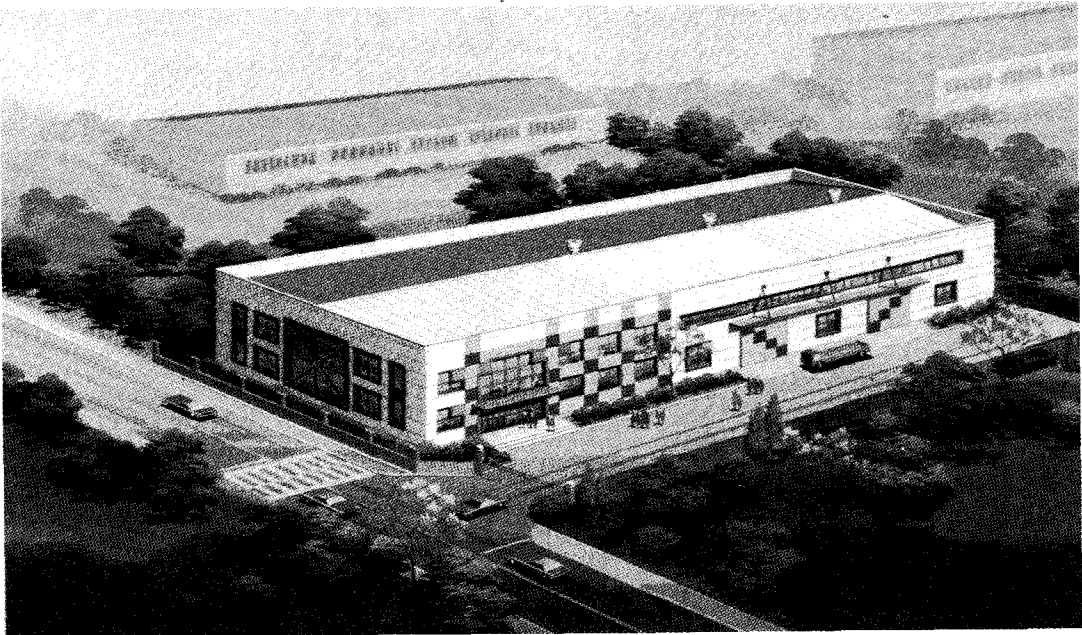
팅기, 로봇자동 취출기, 필름 압출기, 필름 코팅기, 인쇄기, 쉐어링 등 식품포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제품의 다양성으로 거래처의 지변 확대에 힘써 두부용기, 김치, 단무지 용기 및 도시락, 과자류 용기와 그 용기에 사용되는 필름 및 파우치류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무조건 제품의 품질이 제일 중요 하지만 조사장은 소비자들의 시건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포장필름전용의 전문 컴퓨터 디자인실도 운영하며 포장 전문 메이커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동광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신용과 친절한 거래로 창의성을 가지고 기획관리 한다”는 사규와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 과 분



▲ (주) 동광의 포장용 필름을 생산하는 연포장기들




▲ (주)동광의 조감도

업화를 지향하며 임직원들의 인격 존중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며 그들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조 사장이 임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과 내뿜고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잘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인 정관모 사장은 오로지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조 사장은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이익창출에 급급한 대기업과는 거래선을 만들지 않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국 70~80%정도가 중소기업인 두부공장, 단무지공장에 물량을 공급하여 연포장의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그들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동광은 연간 30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15%를 오로지 공장신축과 기계설비 등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며 전 임직원들의 합심된 모습으로 믿음과 신뢰로 뭉쳐 회사운영에 활력소를 주고있다. 조 사장은 무리한 확장 운영을 지양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무 부채에 대한 기업 운영으로 동종 업계간의 포장용 필름 전문 제조업체로 인식을 확고히 다져 25년 간의 전통을 바탕으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공정을 자동화시켜 능률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무인공정라인을 완비 할 것임을 부추겼다. 

조상호 기자